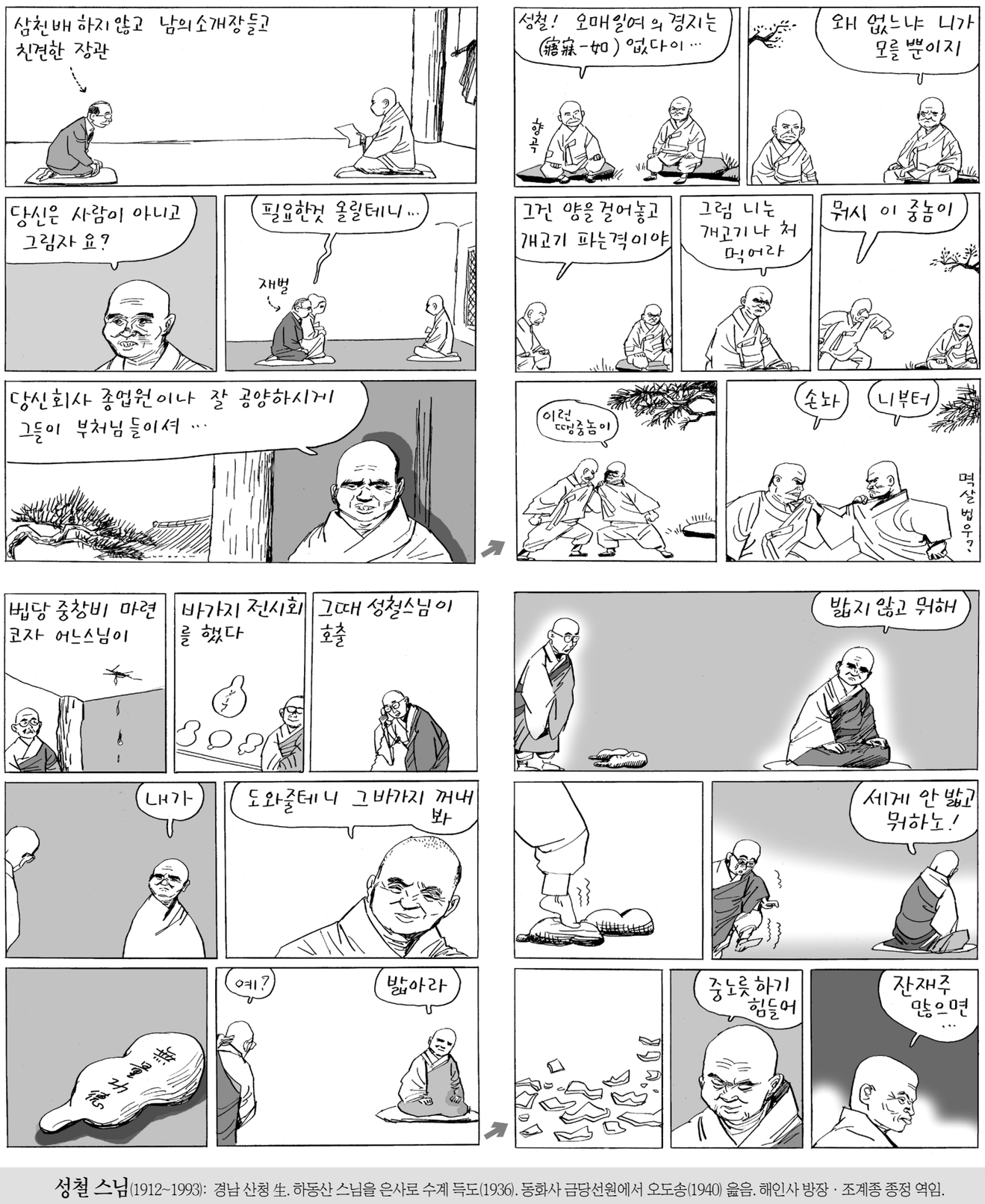
주장자따라…

⑱ 성철 스님의 '바가지를 밟아라'

조태호



성철 스님(1912~1993): 경남 산청 生. 하동산 스님을 은사로 수계 득도(1936).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오도송(1940) 읊음. 해인사 방장 · 조계종 종정 역임.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68>

화엄경 입법계품

바른 안목 만이 환술 세계서 해탈케 해

지혜 · 자비 서로 의지하며 보살행 실천

선재동자는 최적정바라문으로부터 남쪽의 '묘한 뜻 꽃문(妙意華門)'이라고 하는 성에 있는 덕생(德生)동자와 유덕(有德)동녀를 찾아가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물으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다. 선재동자는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그 성에 이르러 덕생동자와 유덕동녀를 만나보고 그들에게 예배하고 나서 가르침을 청하였다. 이 때 동자와 동녀는 선재동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우리는 보살의 해탈을 증득하였으니 이름이 '환술처럼 머무름(幻住)'이다. 이 해탈을 얻었으므로 모든 세계가 다 환술처럼 머무는 줄로 보나니 인연으로 생긴 탓이다. 모든 중생이 다 환술처럼 머무나니 업과 번뇌로 일어난 탓이다.

모든 세간이 다 환술처럼 머무는 것이니 무명과 존재(有)와 욕망(愛) 따위가 서로 인연이 되어 생기는 탓이다. 모든 법이어서 다 환술처럼 머무는 것이니 '나'라는 소견 따위의 갖가지 환술과 같은 인연으로 생기는 탓이다. 모든 세 세상이 다 환술처럼 머무는 것이니, '나'라는 소견 따위의 뒤바뀐 지혜로 생기는 탓이다. 모든 중생의 생기고 없어지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운 것이 다 환술처럼 머무는 것이니 허망한 분별로 생기는 탓이다.

또한 모든 국토가 다 환술처럼 머무는 것이니 생각이 뒤바뀌고 마음이 뒤바뀌고 소견이 뒤바뀌어 무명으로 나타나는 탓이다. 모든 성문과 벽지불이 다 환술처럼 머무는 것이니 지혜로 끊는 분별로 이루어지는 탓이다. 모든 보살이 다 환술처럼 머무는 것이니 스스로 조복하고 중생을 교화하려는 여러가지 행과 원으로 이루어지는 탓이다. 모든 보살대중의 변화하고 조복시키는 여러가지 일이 다 환술처럼 머무는 것이니 서원과 지혜의 눈으로 이루어지는 탓이다. 선남자여, 환술 같은 경계의 성품은 헤아릴 수 없다.

선남자여, 우리 두 사람은 다만 이 환술처럼 머무는 해탈을 알 뿐이니 저 보살마하살의 그지없는 일의 환술그물에 잘 들어가는 그 공덕의 행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말하겠는가."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의 선지식이다. 두 사람의 선지식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법문을 함께 설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덕생동자와 유덕동녀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지혜와 자비가 서로 의지함을 나타내는 것이니, 지혜는 덕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이고, 자비는 덕을 쌓음으로써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지혜와 자비의 행이 균등해서 더하고 덜함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의 이름이 '묘한 뜻 꽃문(妙意華門)'인 것도 묘한 지혜와 자비로운 실천 행을 꽃피우는 것이 모두 원만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환술처럼 머무름(幻住)'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설하고 있는 '환술처럼 머무름'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 법문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眼目)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법문에서는 세계, 중생, 세간, 모든 법, 삼세(三世), 생로병사 우비고뇌 등이 모두 환술처럼 머무는 것이며, 또한 국토, 성문과 벽지불, 보살들의 여러가지 행 등도 환술처럼 머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한다. 이들이 모든 세계의 일체의 것이 모두 환술처럼 머무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실을 볼 수 있는 깨끗한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보면 세계의 모든 것은 제각기 고유한 본성이 있어서 그러한 모습으로 실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러 저러한 인연에 따라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일시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일체의 것은 모두 비실재인 셈이 되는 것이다. 이들의 법문 중에서 '환술같은 경계의 성품은 헤아릴 수 없다'고 설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실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고, 존재하면서도 실재하지 않는 존재의 세계의 미묘한 실상(實相)'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이 인연에 의해서 허망하게 모습을 짓고 있기 때문에 '환술처럼 머무름'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아는 지혜가 환술과 같은 경계 속에 머무는 것도 또한 '환술처럼 머무름'인 것이다. 보살은 이와 같은 안목을 지님으로 해서 비로소 진정한 보살행을 행할 수 있게 된다.

미혹해서 이러한 실상을 모르는 중생은 세상 일체의 것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거나, 반대로 세상을 무조건 부정하려고만 한다. 그러나 보살은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존재의 있음(존재)과 없음(空)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어떠한 경계에 구애됨이 없이 일체의 선법을 부단히 지어가면서 자비로운 덕을 중생들에게 널리 베풀 수가 있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네티즌 교리문답

'눈먼 거북, 절름발이 자라의 뜻은?'

문 선어록에 나오는 '눈먼 거북', '절름발이 자라'의 뜻을 일러 주세요. (ID '뜬봉사')

답1: '눈먼 거북', '절름발이 자라'란 말 그대로 완벽치 못한 것을 말합니다. 전도몽상으로 헤매는 중생이 바로 이들이요, 안다고 해도 껍데기만 알아서 양변에 고루 머묾없이 머물지 못해 변견에 빠져 또 다른 분별과 집착에 얽매인 사람들이야 말로 눈먼 거북이요 절름발이 자라나 다름없습니다. 자기 주장이나 주의에만 물들어 전체를 살필 줄 모르고, 깨우쳤다 하여 단공에 빠져 쓸어버릴 줄만 알았지 세울 줄 모르는 사람, 남의 말이나 행동에 빠지거나 이를 근사히 여겨 그저 제 소식은 없이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견해를 빗대어 절름발이 자라, 눈먼 거북라 합니다. (ID '나애꾸')

답2: 〈벽암록〉 제12칙 '동산(洞山) 마삼근(麻三斤)' 편에 '절름발이 자라와 눈 먼 거북이가 아무 것도 먹을 것이 없는 빈 골짜기에 떨어진 격이다(跛鱉盲龜入空谷)'는 송(頌)이 보입니다. 이는 세속적인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러한 답을 기다렸던 어떤 스님의 질문이 운문 스님의 살아있는 답을 만나자 의미를 잃고 가련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쓰인 경우입니다. (ID '김성우')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㊷

교외별전(敎外別傳)- 2

가르침, 마음 전하기 위한 것

이심전심 일상 언어와 다른 듯

전호의 글 끝부분에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선종에서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는 구호, 즉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한다'는 구호에 흔히 따라 붙는 구절이다. 전한다고 하면 대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뜻인데,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한다 하면 과연 무엇을 전한다는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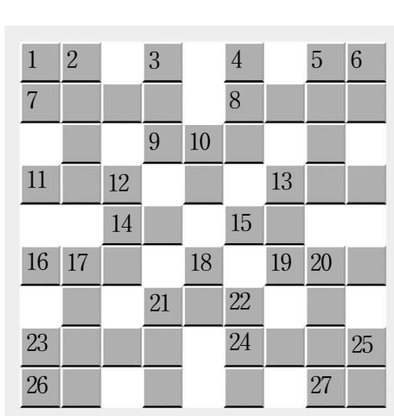
여기에서 '가르침'이란 좁은 의미로는 경전에 담긴 가르침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교외별전이라 하면 경전에 담긴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전해진다는 뜻이고, 그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심전심이다. 앞의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일상적인 어법에서는 이심전심이라 하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속마음이 전달되어 알아준다는 뜻이고,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교외별전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요, 언어문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즉, 부처님이 가르침을 편 취지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지 가르침을 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편 목적이 가르침을 전하는 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야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그 점을 힘주어 얘기하는 하는 것이 좀 우습게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듯이, 선종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교인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 점을 망각하고 엉뚱한 데에다가 힘을 다 쏟고 있었다. 즉, 경전의 문구를 가지고 씨름하는 데 몰두하다보니 정작 경전에 담긴 가르침의 취지를 실천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그 많은 설법을 통해서 전하려고 한 것은 그 숱한 까다로운 개념이나 교리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깨달은 체험이 아니겠느냐는 새삼스러운 이야기를 선종 사람들이 힘주어 되풀이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아무튼, 마음을 전하다니,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것은 아마도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종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석가모니로부터 가섭(迦葉)으로, 그 다음에는 아난(阿難)을 거쳐 쭉 내려와 달마(達摩)로 이어지고 달마가 중국으로 와서 또 계속해서 등불을 전했다는 이른바 전등(傳燈)의 역사이다. 그 전등과 전심(傳心)은 아마 같은 것일 터이고, 그렇다면 이심전심이라는 구절에서 말하는 마음은 곧 부처님으로부터 쭉 전해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어떤 마음? 부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하면 흔히 그런 마음 또는 의기투합된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선에서 말하는 이심전심의 마음은 아무래도 그런 것만은 아닐 듯하다. 선사들의 설법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라는 말이고, 선사들이 말하는 마음이란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과는 일단 좀 다른 듯하다. 예를 들어 〈마조록(馬祖錄)〉에서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으로부터 유래하며 모든 명칭 또한 마음의 다른 이름이고, 모든 존재와 현상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니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본'(一切法皆是心法 一切名皆是心名 萬法皆從心生 心爲萬法之根本)이라고 한 그런 뭔가 심각한 의미의 마음인 것 같다. 그건 과연 어떤 마음인가?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상식퍼즐



정답은 30면에

가로 1. 부처님 오신날 이것을 들고 제등행진을 함 5. 보고 듣거나 배워서 아는 지식 7. 미륵, 문수, 관음, 보현 보살 등 4분의 보살 8. 푸짐하게 차린 음식 9. 방바닥을 만드는 얇고 넓은 돌 11. 등기소에서 등기해 두는 장부 13.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 14. 정리하여 치우거나 마무리를 지음 15. 일이 진행되는 속도 16. 교사 19. 남의 재물을 몰래 훔침으로써 성립되는 죄 21. 역대 선사들을 모신 전각 23.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동정하고 도움 24. 문화적인 판단력과 교양이 있는 국민 26. 국가 · 민족 · 사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쳐 일하려는 포부를 가진 사람 27. 유행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세로 1. 연설을 하는 사람 2. 등대를 관리하는 사람 3. 빛좋은 000 4. 엄청나게 많음 5. 자기의 본성을 철견하는 것에 의해 각자가 성불한다는 선(禪)가의 용어 6. 반찬 10. 들을 이룬 벌판 13. 부처님이 깨달음을 증득한 날 17. 인생의 4가지 괴로움 18. 선종의 법리를 통달한 스님 20. 독립하여 국가를 이루고 있는 도시 21. 동물에게 곡예 따위의 재주를 훈련시키는 사람 22. 한 가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23. 팥죽 먹는 날 25. 민중의 생활 감정이 소박하게 담긴 노래를 통틀어 이르는 말.